



**강화 선원사 황토방 전경.**



'찜질도 하고, 헬스도 하고...'  
일상에 바쁜 현대인들이 '특별한' 절을 찾고 있다. 수행 공간은 기본,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쉼터'의 기능까지 제공하는 사찰로 몰려들고 있다. 황토방이 그렇고, 사찰 건강식 맛보기가 그렇다. 이에 따른 사찰의 변화시도도 다양하다. 단순히 쉬는 개념에서 '건강 증진'과 '레저 스포츠' 등 최근 각광받는 여가생활패턴을 적극 도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요즘 뜨고 있는 채식은 물론 PC방 무료운영, 당구대 등도 절에서 만날 수 있다. 사찰의 '조용한 변신'. 그 변화를 주도하는 사찰을 찾아가 본다.



**# 절집과 불가마가 만나면**

불교계에서 처음 황토방을 개원한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 6년 전부터 운영하던 비닐하우스 시설을 허물고, 황토방을 신축했다. 한의사의 자문을 얻어 30kg 소금 1천여 포대와 각종 한약재를 황토에 쏟아 넣었다. 또 170여평 건물 곳곳에 100% 황토를 벽에 발랐다.

5월 19일, 선원사 황토방이 재개원되던 날. 성원 스님은 이 말부터 했다.

"종교가 중요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문화입니다. 사찰도 휴식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황토방을 만든 이유가 그렇습니다. 불사가 따로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강화 선원사 19일 황토방 개원  
입소문 타 이곳 모르면 '간첩'**

이 황토방에서 몸과 마음의 때를 깨끗이 씻을 수만 있다면, 이곳이 바로 진정한 기도수행처가 아니겠습니까?"

'사찰'과 '한증막'의 절묘한 만남. 반응은 이미 폭발적이었다. 평일에도 2백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입소문도 퍼져 강화지역은 물론 부산에까지 찾아와 한증막 마니아들 세계에서 이곳을 모르면 '간첩'으로 통한다.

"좋아요. 잔뜩 땀을 흘리다보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이예요. 번뇌를 녹이는데 이만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는 쉬면서 기도하는 도량이에요." 이 지역주민 심건섭(75) 씨의 말이다.

현재 한증막 등 휴식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사찰은 선원사, 월정사 강릉시 포교당 관음사 등 3~4곳 정도. 개설 문의 전화도 잇따르고 있다. 무주 안국사, 나주 미륵사, 서울 불원사 등이 한증막 개설을 추진 중이다. (032)933-8234

**여기 절집 맞아~**

주5일근무제, 웰빙 바람에 사찰 '휴식' 공간으로 변신



5월 19일 개원한 강화 선원사 황토방에서 불자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 견고, 만들고 몸, 마음 행복이**

**# 친구야, 놀러가자 사찰로**



PC방·탁구대·헬스기구 등을 마련해 놓은 거창 심우사.

**거창 심우사 청소년 공간 마련  
교사 상주, 공부·운동 지도 점검**

채영(대성환경정보고 2)이의 방과 후 활동은 해인사 거창포교당 심우사(주지 심우)에서 시작된다. 채영이가 심우사를 찾는 이유. 무료 PC방과 탁구대, 당구대, 헬스기구 등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부방과 지도 교사 5명이 교대로 직접

공부도 지도해주니 금상첨화인 셈이다.

"절은 학교 자율학습보다 분위기가 조용해 공부도 잘 돼요. 공부하다가 몸이 피곤할 때 탁구 한 게임 치고 나면 마음까지 개운해져요." 채영이는 친구들과 탁구를 치고 나면 공부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초·중·고등학생들의 반응은 한결 같다. 일반 PC방에서 오락게임으로 허비하는 시간도 적어지고, 또 절에 와서 스님한테 좋은 말씀

을 들을 수 있어서 매일 오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심우 스님은 친구처럼 아이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불교적 인생관을 심어주고 학생들의 고충을 풀어주는 인성 상담자로서의 역할까지 하면서 청소년 문제 해결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심우 스님의 청소년들을 향한 특별한 시설 투자와 관심덕분에 심우사는 언제나 학생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초과일 등 때는 작업도 학생들이 주말을 이용해 자원봉사에 나섰다. 등줄도 치고 등도 달고 등표까지 붙이며 구슬땀을 흘렸다.

현재 심우사에는 지난 2000년부터 마련한 컴퓨터 17대를 갖춘 PC방, 탁구대, 당구대, 헬스기구, 농구대 등과 50명의 좌석을 갖춘 공부방까지 있다. 4년간 하나하나 마련하기 시작한 심우스님은 이제 동아리방을 열 생각이다. 마루바닥, 음향시설을 갖춘 동아리방 문을 열면 댄스, 보컬그룹, 사물놀이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심우사는 이 지역 청소년들의 여가를 책임지는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된다. 예산 확보를 마치고 부지를 물색 중이다. (055)944-2093

**평택 수도사 '슬로우 푸드' 준비  
사찰음식만들기 등 체험 위주**

토요일 오전 수도사를 찾은 이 씨 가족들. 우선 덕덕장아찌, 민들레나물, 감자보리밥 등 각종 사찰 음식으로 마련된 슬로우 푸드를 먹는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사찰음식 만들기, 장작짜기, 다도 등을 체험해 본다.

다음날 오전 가족들은 사찰 인근 진흙 산책로를 맨발로 걸었다. 발바닥에 닿는 진흙을 느껴본다. 죽어있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흙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운다.

이런 체험이 올 9월경이면 가능해진다.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수도사 내에 공간을 마련 중이기 때문이다.

수도사 주지 적문 스님은 "올 9월초 완공 예정인 50여 평의 체험장은 사찰음식 만들기, 발우공양, 행선 체험 등 템플스테이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31)682-3169.

글=천미희·김철우·남동우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여름 특별기획안내** (회화유람선으로 이는 중국여행 및 사찰순례)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제주 화요일 출발
  - 천진. 북경 7일(피운사, 와불사, 용화궁) ₩ 390,000원
  - 천진. 북경. 낙양 7일(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490,000원
  - 천진. 북경. 오대산 7일(운강석굴, 화엄사, 현통사) ₩ 590,000원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제주 금요일 출발
  - 천진. 북경. 내몽고 8일(호화호루) ₩ 520,000원
  - 천진. 북경. 패상초원 8일(포타리궁, 보녕사) ₩ 520,000원
- 호화유람선 위동페리로 제주 목요일 출발
  - 청도. 제남. 곡부 6일(천불산 만불동, 영암사, 잠산사) ₩ 390,000원

**요급포함내역(공동여행)**  
-포함사항: 왕복 선박료, 호텔(4성, 4실 2인1실), 입장료, 여행자 보험, 항공세, 선내 다인실 기준, 전일정 식사(선내 포함)  
-불포함사항: 중국 비자비, 현지 가이드 기사비, 개인경비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 79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 79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 69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 69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 169만원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시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차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차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